“‘명승’ 망해사, 김제 대표 힐링 도량으로”

국가유산청, 망해사 명승 지정 기념행사 개최

10월 4일 김제 망해사 경내서
생물학적, 학술적 가치 남달라
국가유산청 출범 이후 첫 지정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0월 4일 김제 망해사(주지 우림 스님) 경내에서 ‘김제 망해사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제 망해사가 자연유산 ‘명승’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0월 4일 김제 망해사(주지 우림 스님) 경내에서 ‘김제 망해사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은 예로부터 서해에서 해가 저무는 해넘이 경관이 아름다운 명소로 유명하다. 망해사 일원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새만금 방조제 조성을 통한 담수화 과정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관적·역사적 가치와 함께 생태·인문학적 가치 등을 두루 인정받아 지난 6월 18일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을 비롯한 17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지역주민, 불자 등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박소리 무용단의 식전 공연인 ‘망해사 해넘이 북춤’으로 시작됐다. 타악 강형수, 피리 김성엽, 대금 이진용, 해금 김기범 등 국악 연주가들과 불교무용대전 대상 수상자 성혜진이 함께 ‘망해, 삼보의 바다’라는 전통국악으로 망해사 일원의 명승 지정을 축하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가려면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이 보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김제시민과 진봉면 주민들에게 국가유산 명승 지정을 축하하며 망해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김해 진봉산 망해사 일원은 망해사 앞 만경강, 서해가 어우러지는 해넘이 명소 중의 하나이며 새만금 조성으로 담수화되어 철새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생물학적 가치 또한 갖춘 자연유산의 보고다”며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비롯해 역사가 깃든 문화유산과 오랜 전통의 무형유산까지 모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이 국가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 망해사 일원을 고단한 일생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편안한 쉼과 여유, 낭만을 선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망해사 주지 우림 스님은 “망해사를 찾는 분들에게 힐링 공간과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사,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 봉정

10월 4일, 경내 대웅보전서
10월 中 디지털 경판 공개


송광사는 10월 4일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 봉정식’을 봉행했다.

승보종찰 송광사의 역사가 담긴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의 봉정식이 봉행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10월 4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 봉정식’을 봉행했다.

조계산 송광사사고 봉정은 2022년 3월 서울 규장각에서 소장하던 송광사지도 모사본을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8월 삼성문화재단이 송광사 화엄전 내 경판 디지털화를 약속하고 2023년 8월 후원협약서를 체결해 간경도감본 경전 촬영과 송광사사고 영인본 편찬이 진행됐다.

2023년 9월에는 동국대 아카이브와 협의해 송광사 소장 목판 59종의 사진 1만900여 장, 간경도감본 주요 불서 31종의 사진 1941장을 디지털 탑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송광사 경판 고화질 촬영을 마쳤다.

이어 2024년 4월부터 송광사사고 영인 작업이 시작돼 9월 30일 ‘조계산 송광사사고 영인본’ 전 2책이 출간됐다.

제1책에는 건물부, 인물부, 잡부, 산림부, 주지계보, 사료집성이 담겼고, 제2책에는 색인이 담겼다. 올해 10월 중으로 동국대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경판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봉정식에는 수좌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해 유나 범종, 선원장 영선, 회주 영진 스님과 이광재 삼성문화재단 팀장, 이경연 송광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들이 참석했다. 이날 봉정식 이후에는 효봉 대선사 58주기 추모재가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구국 3화상 ‘추계향사’ 봉행

10월 9일 표충사 사당서
사명 · 서산 · 영규대사 기려

사명당 송운 대사, 청허당 서산 대사,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계향사가 봉행됐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10월 9일 경내 사당에서 ‘제562회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표충사 총무국장 성주 스님의 사회로 불교와 유교의 합동 추모재 형식으로 이뤄졌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추계향사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종사영반, 헌향, 헌다, 내외빈 소개, 유교제향, 추모사, 봉행사, 화환소개, 공지사항, 사홍서원, 회향순으로 이어졌다.

불교식 제향의식인 종사영반에 이어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을 비롯한 참석스님들과 허흥 밀양시의회 의장 등 기관장들이 헌향과 헌다를 진행했다. 이어 유교 제향의식인 석전의례가 설행됐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과 밀양시 각 기관장 그리고 시민들은 종교를 초월해 국가를 구한 구국 3화상(사명 대사, 서산 대사, 영규 대사)과 의승병의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봉행사에서 “밀양 출신인 사명 대사의 호국정신과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전 주지 원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사명 대사께서 서산 대사의 지휘 아래 의승병 대장이 되어 왜적과 싸운 것은 백성들이 전란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산중에 머물러서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며 “스님께서 보여주신 나라 사랑과 애민애족 정신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가 10월 9일 경내 사당에서 ‘제562회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강진 무위사, 수륙무차평등대재 봉행

10월 5일 경내 대적광전서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 스님)가 10월 5일 무위사 대적광전에서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무위사 수륙대재는 1430년 세종의 명으로 태조와 태종의 업적을 기리고 불보살의 원력으로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건국 충신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봉행됐다. 조선 초기부터 국행 수륙재로 설행돼 600여 년을 이어온 무위사 수륙대재는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현 주지 법오 스님이 복원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위사 수륙대재를 복원한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 번의 학술대회를 통해 역사적 위상이 확고해졌다”며 “올해는 전통 수륙대재의 의미를 담아 칠칠재로 진행해 옛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덕사 근역성보관 개관 1주년 산사음악회

10월 4일 대웅전 앞마당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주최하고 호원문화재단(이사장 주경 스님, 중앙종회의장)이 주관한 ‘근역성보관 개관 1주년 산사음악회’가 10월 4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3000개 객석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메워졌다. 주최 측은 사전에 성보관·황화정루 앞마당 두 곳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음악회 직관이 어려운 내방객을 위해 편의를 제공했다.

이익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수덕사 산사음악회는 우담바라 합창단과 서광사 합창단의 합동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하이런·강리연·웅산·휘성·이은미·안성훈·송가인의 무대는 관람객들에게 산사의 가을밤, 커다란 힐링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전남어청聯, 천진불 수계법회 봉행

10월 5일 광주 관음사서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대표 무등 스님, 이하 광주전남어청련)가 10월 5일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 스님)에서 ‘제11회 광주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수계산림 법회’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전체 20여 명의 학생이 수계법회를 통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다.

전계대화상 효공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수계 받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앞으로 불교를 이끌어가는 불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전남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목조원불 1천불 점안법회

10월 9일, 경내 대법당서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은 10월 9일 경내 3층 대법당에서 목조원불 1000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동림선원은 2017년부터 천불조성불사를 시작해 2020년 500불 점안대법회를 우선 봉행하고 이날 나머지 500불의 점안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조성된 목조불상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의 삼신불, 서방교주 아미타불, 동방만월세계 약사여래불의 오여래로 각각 200불씩 총 1000불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 약사정사, 관세음보살입상 점안법회

10월 5일, 경내 입구서



진주 약사정사(주지 진여 스님)는 10월 5일 경내 입구에서 제4차 법화경 1000일 기도를 회향하는 석조관세음보살입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증명법사로 나선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약사정사 입구에 관세음보살 입상을 조성하면서 한층 도량이 여법해졌다” 며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원력으로 수행에 더욱 진력하며 복지 불교를 실천하는 모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아미타불 개금불사 회향

10월 9일 경내 극락보전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는 10월 9일 극락보전 앞마당에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증명법사 철산 스님과 주지 진성 스님, 총무국장 진여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대중스님들과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염불행자가 되어 내가 아미타불인 것을 아는 순간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각원사, 시민동행 ‘孝 문화축제’

10월 5일 대웅보전 앞마당서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스님)는 10월 5일 경내 종각 앞에서 ‘제7회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했다.〈사진〉

같은 날 오후에는 천안시민노래자랑을 시작으로 ‘효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는 개그맨 김재룡의 사회로 △각원사도솔합창단 △홍인정 △아정 △뉴진 스님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주지 대원 스님은 “모두가 편안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즐겨달라”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공주 신원사, 명성황후 추모대재

10월 5일 경내 중악단서



공주 신원사(주지 성관 스님)는 10월 5일 경내 중악단 앞마당에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제13회 신원사 중악단 명성황후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성관 스님은 봉행사에서“한 여인이 남편과 자식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했던 신원사에서 좋은 기운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